

한국 불교건축에 나타난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 - 호남지방의 선암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ditional color in Korea Buddhist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Sunamsa Temple of Honam area

박은경

조선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Park, Eun-Kyo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Chosun Univ.

• Key words: Traditional color, Buddhist architecture, Folk color(local color)

1. 서론

1-1. 전통색채의 형성과 반영

전통 색채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자연 동화 사상과 자연을 가꾸며 생산활동을 해왔던 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자연색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른 상징과 소재 및 거주지역이나 생활공간, 그리고 거주자의 의식과 역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에 대한 외세의 영향이 적을수록 정체성이 더 뚜렷해진다.

따라서 지역의 색은 그 지역 사람에 의한 적응과 선택으로써 경관색채에서 건축의 색, 그리고 의복과 음식을 거쳐 생활 소품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반영되어 지역색이나 풍토색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즉 그 지역의 소재와 자연 형태에 따라 형성된 것이 바로 그 지역색이며 민족적 색채가 되고 나아가 그 지역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또한 그 지역의 색채는 심미성·기능성·보호적인 성격을 넘어서 그 지역 거주자의 신체 및 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연색채를 결정하는 대기과 태양 및 그리고 물의 빛, 수목의 빛, 사람의 피부색이 자연환경과 전체적으로 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빛과 색채는 시각적 혹은 비 시각적 토대에서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최승희·이명순, 1998 : 12).

1-2. 전통색채의 해석

지역의 색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색채 학자 장필립렌클로(Jean philippe lenclous)는 프랑스의 전통색과 지역색 연구를 흙에서부터 출발하였고, 흙과 지역소재의 연관 관계를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석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식하기 위해 각 방위에 대해 색깔을 청색·백색·적색·흑색·황색의 오방색으로 배정함으로써 건축 또한 공간적 구분에 전통색채를 이용해 왔다. 실제로 이 오방색은 음양오행설과 연관이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색채를 통해 표현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 건축에서 전통색의 영향을 받아왔던 구조물로는 크게 「단청건축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장소인 「살림집(民家)」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요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자연과 조화한다」라는 개념 하에 자연의 색채를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역과 전통색을 연구함에 있어 그 지역의 영향을 받은 건축 구조물은 중요한 연구 소재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적 전통색채에 대해 그 소재는 목재와 흙과 돌의 혼합에 의해 이뤄지고, 건축의 조성시기에 따라 그 소재의 색채가 다르지만 현색계색표집의 기본 1단위보다 작고 그 작은 범위 내 속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문은배, 안동 하회마을의 환경색채 연구, 2001).

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자는 전통색채가 대체로 많이 남아있는 호남지방의 고건축(古建築)인 불교건축물의 소재에 대한 축색작업을 통하여 호남지방의 전통색채를 다음과 같이 분석·응용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호남지방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불교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색채를 분석하여 지역의 전통색채(傳統色彩)에 대한 색 팔레트를 만들고,

두 번째, 분석의 결과를 정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세 번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호남지방의 전통색의 특색을 지닌 도시색채 계획과 문화자원 개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색채계획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로서 호남지방에 위치하는 비복원 전통사찰인 불교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최근 30여년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료를 근거로 순천시 조계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선암사(仙巖寺)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색채 분석 및 방법론 고안

기준에 활용되어 왔던 색채분석 방법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축색방법을 고안하였다.

2-2. 현장답사 및 소재 선정

선암사를 현장 답사하여 건축물, 탑, 부도, 비석, 다리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배치도를 파악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대상 및 소재를 선정하였다.

2-3. 대상물 촬영 및 축색

일반 사진촬영기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축색 대상물을 1차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각 대상물의 소

재에 대해 색채 색차계 「CHROMA METERS, MINOLTA SR-300 JAPAN」를 이용하여 소재당 3회 측정하였다.

구분		측색 대상	측색 소재	비고
단청색의 유무	지붕의 형태			
단청색이 있는 건축물	팔작지붕	강선루	단청, 기단돌, 기와, 사물(운판·범고·목어·범종), 주연의 흙	기와는 시대의 구분이 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편이 되어 있는 문화재의 현재 담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맞배지붕	일주문		
	팔작지붕	범종루		
	맞배지붕	만세루	단청, 창호, 마당, 기단돌, 돌담, 토담, 벽(토벽·나무벽), 흙, 모래, 기와, 돌계단, 출입문, 기둥(목재), 문지방, 돌	
	맞배지붕	응향각		
팔작지붕	원통전			
...		
단청색이 없는 건축물 (삼립집의 형태)	팔작지붕	심검당	출입문, 창문, 창호, 마당, 돌, 기단돌, 돌담, 토담, 기둥(목재), 벽(토벽·나무벽), 흙, 기와, 돌계단, 문지방, 마루, 돌	
	맞배지붕	설선당		
	팔작·맞배지붕	창과당		
...		
석교(石橋)		승선교		
석물(石物)		3층 석탑		
		부도	흙, 돌, 이끼끼 등	
기와(瓦)		망와		
		기와		
		암·수역새		

【표 1】 측색대상 선정표

2-4. 현장 측색 및 표준색표에 의한 좌표 분석

국제 표준색체계(Munsell, CIE L*a*b*)에 실측 결과를 대입하여 고유색의 색좌표와 표현 허용 범위 및 배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KS 규격의 명도(밝기), 채도(포화도, C 값), 색상을 CIE L*a*b* 공간에서 분석하였다.

3. 선암사 불교건축의 색채 분석

3-1. 선암사 불교건축에 기초한 전통색 색출



【그림 1】 강선루의 외부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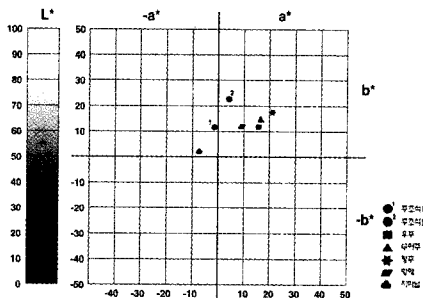
구조물	측색대상물	L*	a*	b*
강선루 (降仙樓)	주초석 I	46.30	-0.25	12.60
	주초석 II	49.77	4.61	23.19
	우주	36.73	15.96	12.61
	루하주	35.70	17.05	14.66
	평주	37.25	20.23	17.20
	멍에	41.31	9.66	12.22
	치마널	56.95	-8.97	2.15
...

【표 2】 강선루의 측색 중앙치 (예시1)

3-2. 측색된 데이터에 대한 좌표 분석

강선루의 색채 중 a*와 b*가 제일 높은 소재는 평주로, 가장 높은 채도를 갖는 요소라 할 수 있다.

a*, b*값의 높은 순서로 평주, 루하주, 우주, 멍에, 주초석 II, 주초석 I, 치마널의 순이었으며, 루하주는 비교적 높은 채도를 지니고 있지만, 가장 어두운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강선루의 측색 데이터 분석 (예시2)

4. 전통색채의 문화 디자인 응용

4.1. 전통색채(傳統色彩)에 의한 색 팔레트 구축

분석된 선암사의 전통색채는 자연에서 수집한 토속적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 문화재에 토속적 색채가 분포되어 있어 문화재 관람시 토속색이 의식 속에 인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색채에 의한 색 팔레트는 현대문화의 색채 계획 시 활용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전통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역사성을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2. 전통 색채의 정보화 가능성

자연에 친화하려는 국민의 정서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색채를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색채 적용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우리의 문화·자연·생활에 내재된 색채의식을 사찰이라는 전통 건축물의 색채연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역에 따른 색자료집, 소재에 따른 색채 표본, web site, 도서출판, CD Rom 제작 등에 체계적으로 정보화 된다면 디자인의 교육과 색채 계획시 창조적이고 차별화 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전통색채의 팔레트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사료된다.

4.3. 전통색채의 문화화

(1) 관광상품의 디자인 활용

지역사회의 관광상품 개발시 전통색채 개념을 이용한 디자인 개념을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의 관광을 통하여 얻은 이미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 색채를 인지화하여 세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상품 개발시 얻어진 전통색 팔레트를 활용한다면 일관적인 색 인지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색채 계획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 및 문화재 계획시 활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선암사의 전통색채는 지역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토속색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토속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계획시 무분별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토속색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현대인의 무한 욕망추구를 정서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전통 건축물의 색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색채를 분석하여 얻어진 전통 색채 팔레트의 정보화를 통하여 전통색채 특색을 지닌 도시색채 계획과 문화재 개발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색채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건축 조성 시기에 따라 여러 지역의 전통사찰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 Fusimoto Akira,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김기환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86
- 문은배, 안동 하회마을의 환경색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